

## 강간치상·강제추행치상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

[대구고등법원 2017. 2. 3. 2016노386]



### 【전문】

#### 【피 고 인】

【항 소 인】 검사

【검 사】 이도희(기소), 심재계(공판)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윤정대

【원심판결】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. 6. 23. 선고 2016고합60 판결

#### 【주문】

】

1. 원심판결을 파기한다.
2.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.
3.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.
4. 피고인으로부터 97,500원을 추징한다.

#### 【이유】

##### 】1. 항소이유의 요지

원심의 형(징역 3년, 집행유예 4년)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.

##### 2. 직권판단

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.

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범행에 관하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죄와 각 강간치상죄 또는 각 강제추행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하였다.

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한 행위는 일련의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, 그 보호법익 역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죄는 그 오·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완전성을 내용으로 하는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, 양 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인다.

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.

##### 3. 결론

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#### 【이유】

##### 】1. 항소이유의 요지

원심의 형(징역 3년, 집행유예 4년)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.

## 2. 직권판단

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.

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범행에 관하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죄와 각 강간치상죄 또는 각 강제추행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하였다.

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한 행위는 일련의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, 그 보호법익 역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죄는 그 오·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완전성을 내용으로 하는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, 양 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인다.

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.

## 3. 결론

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### 【이유】

#### 】1. 항소이유의 요지

원심의 형(징역 3년, 집행유예 4년)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.

## 2. 직권판단

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.

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범행에 관하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죄와 각 강간치상죄 또는 각 강제추행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하였다.

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한 행위는 일련의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, 그 보호법익 역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죄는 그 오·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완전성을 내용으로 하는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, 양 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인다.

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.

## 3. 결론

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### 【이유】

#### 】1. 항소이유의 요지

원심의 형(징역 3년, 집행유예 4년)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.

## 2. 직권판단

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.

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범행에 관하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죄와 각 강간치상죄 또는 각 강제추행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하였다.

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한 행위는 일련의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, 그 보호법익 역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죄는 그 오·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완전성을 내용으로 하는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, 양 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인다.

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.

## 3. 결론

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### 【이유】

#### 】1. 항소이유의 요지

원심의 형(징역 3년, 집행유예 4년)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.

## 2. 직권판단

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.

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범행에 관하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죄와 각 강간치상죄 또는 각 강제추행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하였다.

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한 행위는 일련의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, 그 보호법익 역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죄는 그 오·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완전성을 내용으로 하는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, 양 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인다.

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.

## 3. 결론

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### 【이유】

#### 】1. 항소이유의 요지

원심의 형(징역 3년, 집행유예 4년)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.

## 2. 직권판단

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.

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범행에 관하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죄와 각 강간치상죄 또는 각 강제추행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하였다.

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한 행위는 일련의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, 그 보호법익 역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죄는 그 오·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완전성을 내용으로 하는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, 양 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인다.

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.

## 3. 결론

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### 【이유】

#### 】1. 항소이유의 요지

원심의 형(징역 3년, 집행유예 4년)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.

## 2. 직권판단

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.

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범행에 관하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죄와 각 강간치상죄 또는 각 강제추행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하였다.

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한 행위는 일련의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, 그 보호법익 역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죄는 그 오·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완전성을 내용으로 하는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, 양 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인다.

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.

## 3. 결론

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

### 【이유】

#### 】1. 항소이유의 요지

원심의 형(징역 3년, 집행유예 4년)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.

## 2. 직권판단

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.

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범행에 관하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죄와 각 강간치상죄 또는 각 강제추행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하였다.

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한 행위는 일련의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, 그 보호법익 역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죄는 그 오·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완전성을 내용으로 하는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, 양 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인다.

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.

## 3. 결론

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.